

## 동해해수청,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태풍·호우 발생 등 기상악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고, 휴가철 바다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‘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’을 수립하여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대책에서는 △빈발사고(추락·화재사고) 중점관리, △ 태풍·호우 등 기상 대응 및 권역별 안전관리 강화, △ 다중이용선박(여객선) 중점관리, △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 캠페인 확대를 포함한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.

특히,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소재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 착용, 심폐소생술 실습, 해양안전수칙 홍보 등 체험형 해양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는 7월 중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.

또한, 태풍·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해양·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만 건설현장, 항만시설 및 항로표지·등대 등 육·해상 해양교통시설물과,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선박 조기 피항 유도 등을 통한 선박안전관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선박 및 해양항만 시설물 안전확보와 대국민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왕식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한기현 (033-520-6147)